

오름허리 좌정훈
할마님은 송씨할마님
할으바님은 산신백관.
할로영주산에서 무유^호게
시성제가 탄식^호여 사는디
큰성님이
아바님 어머님에 불효해서
“느냥으로 아무디나
떠나라”고 내조친 게
도들봉 오름에 완
천정배필 ?심
송씨할마님을 만났습니다.
송씨할마님은
갈티 올티 엇인
할으방을 만난
부배간을 삼아서 사는디.
호로은 의논을 허되,
“우리가 어떻^호여서라도
먹엉 살 수단을 허자.”
허연,
높은 도들봉 오름에서
수방을 술펴 보니
집도 많고 인민도 많고
주손덜도 많고 허연,
미신 수단이 날 듯
허였습니다.
허를날은 할망 할으방이
좀을 자다가
붉는날은 일어난
남쪽데레 돌아사서
손을 받아 말을 허멍
“산신님이 신령이건
우리안티 어떻^호
영을 내리와 주십서.”하고
빌어가니,

모을 사름들이 나산 보고,
“어떻 흐난 오름에 전이 엇이
백발노인 부배간이 나산
손을 받안 빌엄시닌?
거축, 이상훈 일이여.”

흐명서도

“이게 필요 흐 일이라” 흐고,

모을 유지자들이 모여 앉아

“이제 우리 모을에

저 오름의 어룬들을

큰 어룬으로 모시게.” 흐연

의논이 돌았습네다.

모을에선 오름허리에

꽃낭 싱그고 탑뭇고 흐연

“모을 본향으로 위 흐게”

흐였습네다.

그영 흐였는디.

그후 흐로은 그 모을에

아주 머리 씬 양반이

나타난,

“오름에 뭔 귀신이

있겠느냐?” 흐명,

본향에 간, 담도 물아불고

낭가지도 근차불고 흐난

본향에선

“이제랑 이 모을에

조애를 주자” 흐연,

어린애긴 허멀도

많이 나게 흐곡,

谮순 물에 들레 강

죽게 흐곡,

보제기도 바당에 가민

배 엎어불곡, 흐명

풍문조웰 주었습네다.

그영 흐연 이 본향의

할망 할으방은

“이 모을에 앗일 곳이

아니다” 흐연, 오름에서

알레레 누련,
신당으로 모신 것이
오래물은 철로부인,
수진밧은 삼천백매또
고봉갠 노적부인
지름물은 물감상,
활성동산 신임대부인,
백갠 붉은왕돌 신임제석,
남당은 칠머릿당으로
위호자.
오도롱은 구가삭 신가삭
오금상 금배리 시왕상수또,
웃당은 큰도한집으로 위호고,
가운단 부젯또로 위호고,
알당은 축일한집
쇠 잘 되렝 위호곡
훌캔 고냥할망.
몰래물은 장진에서
들어온 쇠출래미 영감또.
훈도 두도 쑤물두도
가지갈른 송씨할마님.

제일 1월 15일

1월 3일

1월 7일

<제주시 삼도동 여무 45세 문옥선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355-356.